

우울을 견디는 세가지 방식

몽상으로 뛰어넘는 건조한 일상의 세계

김형중 | 문학평론가

문학동네/A5신/232면/7000원

문학과지성사/A5신/328면/7500원

민음사/A5/280면/7500원

돌이켜 볼 때, 90년대 소설들은 80년대 소설들에 대한 애도작업, 혹은 애도작업의 성공적인 결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리 과장은 아닐 듯 싶다. 자의든 타의든 내 사랑하던 대상에서 어쩔 수 없이 '카텍시스' (리비도 집중)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이들의 우울과 슬픔, 그리고 그것의 극복과 새로운 대상으로의 리비도 전이를 우리는 10년 동안 지켜봐온 셈이다.

90년대 소설의 사소설적 특징

'모스크바에서 몰아친 삭풍' 이후 현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념에서, 해방된 공동체에 대한 예언에서 어쩔 수 없이 철회해야만 했던 카텍시스가 소멸되지 않은 채 자아를 향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되돌아온다. 90년대 소설들의 내밀하고 몽상적인 사소설적 특징들은 이로부터 연유하는 것이겠다. 더러는 이 애도작업의 우울한 풍경 속에 안주한 채로, 더러는 새로운 대상을 찾아 리비도를 되돌리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2000년대가... 느닷없이 닥쳐 버렸다.

조경란의 소설집 《나의 자줏빛 소파》(문학과지성사)의 주인공들을 보건대 이 애도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만 같다. 이 소설 속의 모든 주

인공들은 방금 사랑하던 사람과 결별했거나, 애초부터 혼자 고립돼 존재하던 인물들이다. 말하자면 이들은 대상에서 어쩔 수 없이 카텍시스를 철회해야 했거나, 아주 오래 전부터 현실에서 카텍시스를 철회해버린 인물들이다. 조경란의 문체가 그토록 밀도 있고 아름다운 이유, 또한 이 소설집의 소설들이 쉬 읽히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철회된 카텍시스가 아주 무겁게 자아를 향해 육박하면서, 무거운 자아는 스스로를 아주 느리고 섬세하게 탐구한다. 주위의 풍경이나 사물 하나 하나가 자아의 이 우울하고 사색적인 내밀함에 의해 채색되고 침윤당한다. 이 우울하지만 현란한 세계에서 그녀는 아직 걸어나올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물론, 그녀는 그 세계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는 한다. 소설집 곳곳에서 발견되는 타인과의 소통 욕구에 대한 기호들, 예를 들면, '망원경' (<망원경>) '열쇠' (<유리 동물원>) '네 잎 클로버' (<식물들>) '삼인 분의 식사' (<오늘의 요리>) 등이 그 증거다. 그러나 이 무수한 시도들은 '추상적으로만' 성공한다. 각 소설의 결미를 장식하는 아름다운 빛들의 환영 속에서만... 그러나 이 소통 가능성의 추상적 확인은 또한 조경란의 소설이 갖는 무기기도 하다. 그 추상성에서 소통 불가능한 그녀의 우울이 이 소설을 읽는 모두의 세포 속으로 전염되기 때문이다. 대개 고유명사보다는 추상명사가 쉽게 전파되는 법이다.

일찍 터드난 불혹의 지혜

조경란의 주인공들에 비하면 함정임의 소설집 《당신의 물고기》(민음사)의 주인공들은 거의 애도작업의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소설

집의 주인공들 대부분 역시, 남편이나 동생, 오빠, 아이, 그리고 애인과 사별했거나 이별한 상태다. 그러나 조경란의 주인공들에 비해 이들은 다소 현실적으로, 그리고 슬기롭게 별리를 '극복'한다. 자신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을 소통하게 하는 지혜를 체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상을 향해 있던 리비도를 그 대상의 상실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가까스로 제압하고 난 이들이 다소 체념적으로, 그러나 평정을 잃지 않은 채로, 고통을 고통대로 품어안을 수 있게 됐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혜' 외에는 딱히 다른 말로 부를 필요가 없으리라. <축제의 날과 같이>에서,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의 고통과 남편을 잃은 아내의 고통이 만나 화해하는 순간을 그린 마지막 대목은 그런 고통스런 지혜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서너해 일찍 함정임은 불혹(不惑)의 지혜를 터득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울을 이기는 나머지 한가지 방식은 원재길의 방식이다. 대상에서 철회된 리비도를 새로운 대상, 특히 몽상에 투여하기. 그래서 《벽에서 빠져나온 여자》(문학동네)의 소설들은 거개가 몽상적이다.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때로는 통쾌하게(<신종바이러스에 관한 보고서> <손>), 때로는 슬프고 아름답게(<물속의 집> <별>) 읽는 이를 때로시킨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그의 몽상의 압권은 여자들에 관한 것이다. 거개가 알레고리적인(그러므로 남성적인) 그의 소설들에서 여자는 구원자이자 연민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함정임과 조경란의 소설이 '여성이 여성적으로' 우울을 견디는 방식을 보여준다면, 원재길의 소설들은 '남성이 남성적으로 여성에 대해 몽상함으로써' 우울을 '뛰어넘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 몽상의 절정에 전례없이 아름다운 자궁회귀의 이야기, <물속의 집>이 있다.●